

## 고양(elevation)의 도덕교육적 함의

추 병 완(춘천교육대학교 교수)\*

---

### 《요약》

---

매우 유덕하고 칭찬을 받을만한 혹은 초인적인 방식에서 행동하는 사람들을 관찰할 때, 우리는 고양이라는 긍정적인 도덕 정서를 경험한다. 고양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에게서 무언가 상승된 느낌이 들고, 인간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하며, 가슴 속의 온기를 풍부하게 느끼게 된다. 또한 그들은 타인을 도와주려는 욕망과 더불어 앞으로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강한 포부와 열정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고양은 도덕적 행동을 매개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긍정적인 도덕 정서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도덕 정서로서의 고양에 관한 연구는 아직 초창기라서 국내외적으로 연구 결과가 많이 축적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고양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도덕교육에서 고양의 함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논문에서는 긍정적인 도덕 정서로서의 고양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 도덕교육에서 고양의 중요한 이유를 도덕적 면허의 상쇄 효과라는 측면에서 규명하며, 도덕교육에서 학생들의 고양 경험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고양, 도덕적 면허, 도덕 정서, 도덕교육, 역할 모델, 하이트(Haidt)

---

## I. 서론

최근 신경과학과 긍정심리학의 발전에 힘입어 도덕심리학 및 도덕교육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이동이 진행 중이다. 신경과학과 긍정심리학은 과학적 연구 방법을 통해 도덕 발달 및 도덕교육에 있어서 긍정적 정서의 중요성을 크게 부각시켰다. 도덕성에 대한 신경과학적 연구는 철학, 심리학, 신경과학, 경제학, 인류학, 생물학을 아우르는 종합학문적인 기획이 되고 있으며, 정서는 도덕심리학 연구에 있어서 이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Greene, 2011, p. 1).

---

\* 제1저자 및 교신저자, bwchu@cnue.ac.kr

이런 맥락에서 하이트(Haidt, 2007, pp. 998-1001)는 도덕심리학 연구의 향후 단계는 새로운 종합(synthesis)이 되어야 하며, 그 새로운 종합은 직관의 우선성을 인정하는 것, 도덕적 행동은 사회적 행동을 위한 것임을 인식하는 것, 도덕성의 기능은 결속과 형성임을 인지하는 것, 도덕성은 위해(harm)와 공정성(fairness) 그 이상을 포함하는 것임을 지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도덕교육은 아동의 도덕적 직관 발달 및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그는 도덕적 판단의 직관적 기초에 관한 올바른 이해는 의사 결정을 함에 있어서의 오류를 회피하고, 도덕적 판단과 행동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환경을 구안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Haidt, 2001, p. 815).

사실 도덕심리학이나 도덕교육에서 정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그리 새롭거나 놀랄만한 현상은 아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판단해 볼 때, 도덕심리학 및 도덕교육에서 정서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부정적인 도덕 정서(화, 수치심, 죄책감)와 타인의 고통에 대한 반응(동정심, 공감)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따라서 긍정적 정서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개인의 삶 및 사회의 기능 수행을 증진할 수 있는 긍정적인 도덕 정서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긍정심리학이 등장하여 자리를 잡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이다. 긍정심리학의 등장은 도덕심리학 및 도덕교육에서 긍정적인 도덕 정서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특히 긍정적 정서에 관한 프레드릭슨(Fredrickson)의 새로운 이론적 관점인 확장 축적 모델(broaden and build model)이 발표된 이후로 긍정적 도덕 정서로서의 감사, 감탄, 고양에 대한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고양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동정심, 용서, 이해, 이타심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누군가의 유덕한 행동을 목격하거나 그것에 대해 전해 들은 직후에 개인이 때때로 경험하는 특정한 정서 혹은 상태를 의미한다. 어떤 사람이 순수함과 신성함의 윤리를 위반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때, 우리는 대개 혐오(disgust)라는 도덕 정서를 경험한다. 이와는 정반대로 매우 유덕하고 칭찬을 받을만한 혹은 초인적인 방식에서 행동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관찰할 때, 우리는 고양이라는 긍정적인 도덕 정서를 경험한다(Tangney, Stuewig, & Mashek, 2007, p. 362). 고양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에게서 무언가 상승된 느낌이 들고, 인간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하며, 가슴 속의 온기를 풍부하게 느끼게 된다. 또한 그들은 타인을 도와주려는 욕망과 더불어 앞으로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강한 포부와 열정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고양은 도덕적 행동을 매개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긍정적인 도덕 정서이다.

도덕 정서로서의 고양에 관한 연구를 개척한 하이트는 우리가 몰락하는 타인들을 볼 때 느끼는 정서적 반응인 혐오에 상응하는 정서, 즉 우리가 상승하는 타인들을 볼 때 느끼는 정서가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자신이 고양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됨에 있어서 긍정심리학의 역할이 컸음을 인정한다. 그는 심리학이 인간 본성에 있어서 지나치게 부정적인 것에만 매달려 더욱 밝고 아름다운 면을 보지 못했음을 지적하면서, 그 역시 8년 동안 혐오와 같은 부정적인 도덕 정서에 매달려 왔음을 솔직하게 인정한 것이다(Haidt, 2002, p. 282).

긍정적인 도덕 정서로서의 고양에 관한 연구는 아직 초창기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도덕 정서로서의 고양은 도덕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고양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도덕교육에서 고양의 함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긍정적인 도덕 정서로서의 고양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 도덕교육에서 고양이 중요한 이유를 도덕적 면허의 상쇄 효과라는 측면에서 규명하며, 도덕교육에서 학생들의 고양 경험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II. 고양의 의미와 기능

### 1. 고양의 개념 정의

도덕적 신경과학 분야에서의 최근 연구 결과들은 도덕 정서가 도덕적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도덕 인지와 도덕 행동의 연결에서 정서가 강력한 인과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도덕 정서에 관한 많은 개념 정의들이 시도되기는 하였지만, 포괄적이고 만장일치적인 개념 정의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도덕 정서의 개념 정의에 대한 논의에서의 공통분모는 바로 인지적, 적응적, 동기적 차원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테면, 와이너(Weiner, 2006, p. 87)는 선악정사와 당위에 대한 고려를 도덕 정서로 규정한다. 통제가능성, 의욕, 책임은 도덕 정서의 본질적인 결정인자이기에 도덕 정서는 사려 깊은 정서라고 할 수 있다. 도덕 정서는 도덕적 행동의 규제자로서, 누군가가 지금 그릇되거나 나쁜 행동을 하고 있고, 그것은 수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전달한다(Weiner, 2006, p. 96). 하이트(Haidt, 2003, p. 853)는 도덕 정서를 전체로서의 사회 혹은 적어도 판단자나 행위자 그 이상 사람들의 이해관계나 복리와 연결된 정서로서 정의한다. 그리고 피스케(Fiske, 2002, p. 170)는 도덕 정서를 중요한 관계의 장기적으로 기대되는 혜택을 위한 즉각적인 동기적 대응물로서 정의한 바 있다. 이러한 개념 정의들은 각기 인지적, 적응적, 동기적 차원들을 강조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도덕 정서는 도덕적 행동을 실행하고, 도덕적으로 사악한 행동을 회피하게끔 하는 힘과 에너지를 제공하는 동기력(motivational force)을 제공한다.

그렇다면 여타의 정서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정서로서의 도덕 정서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하이트는 도덕 정서가 갖추어야 할 두 가지 근본 조건으로서 사심이 없는 유도인자(disinterested elicitors)와 친사회적 행동 경향을 제시한 바 있다(Haidt, 2003, pp. 853-854). 사심이 없는 유도인자에 의해 유발될수록 그리고 친사회적 행동을 유도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정서는 도덕 정서의 전형을 갖추게 된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고양은 대표적인 도덕 정서의 하나로 분류된다.

하이트는 고양이 개념이 제퍼슨(Jefferson)으로부터 유래했다고 본다. 1771년에 제퍼슨은 그의 친구인 스킵위드(Skipwith)로부터 자기 계발에 도움을 줌과 동시에 그의 도서관에서 구입할 가치가 있는 도서 목록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제퍼슨은 스킵위드에게 보낸 글에서 역사, 철학, 자연과학과 같은 교육 도서 목록에 덧붙여서 위대한 소설 작품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제퍼슨은 특히 좋은 소설은 실제 에피소드에 의해 유발된 것만큼의 강력한 신체적 감정과 동기적 효과를 수반함으로써 사람들의 감정을 고양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Haidt, 2002, p. 275). 제퍼슨은 특히 위대한 문학 작품들은 청소년의 도덕 정서를 유발하여 도덕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그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자선 행동이나 감사 행동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거나 그것에 대해 상상할 때, 우리는 그것의 미(美)에 깊은 감동을 받게 되고, 우리 스스로가 역시 자선 행동과 감사 행동을 하고자 하는 강한 욕망을 느끼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가 어떤 잔혹한 행동을 보거나 그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에 우리는 그것의 흉함에 혐오감을 갖게 되고, 악에 대한 혐오스러움을 느끼게 된다(Algoe & Haidt, 2009, p. 106).

하이트는 현대 정서 이론가들이 시도하고 있는 고양의 구성 요소들을 이미 오래 전에 제퍼슨이 정확하게 기술했다고 평가한다. 그는 제퍼슨이 고양의 유도인자로서 어떤 자비 혹은 감사 행동을 목격하거나 상상하는 것, 고양의 동기적 경향성으로서 우리 스스로가 자비로운 행동이나 감사하는 행동을 실행하려는 강렬한 욕망, 그리고 정의적 현상으로서 고양된 감정을 느끼는 것과 도덕적 개선을 위한 감정을 제시하였다고 평가한다. 또한 제퍼슨은 고양의 생리학적 반응을 흉강에서 찾았으며, 그는 그것을 모종의 팽창(dilation)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덧붙여 제퍼슨은 고양을 사회적 혐오와 정반대의 대칭 개념으로 파악했다는 것이다(Haidt, 2002, p. 284).

이렇듯 고양의 전제 조건은 도덕적 덕의 전형이 되는 행동, 즉 예상하지 못한 친절, 동정심, 이해, 용서를 표상하는 행동을 목격하거나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 개인은 도덕적 미를 보여주는 행동을 접할 때에 고양 상태를 경험하며, 그러한 감정은 개인이 관찰한 도덕적 미와의 연합을 시도할 경향성을 높여주고, 장차 유사 행동을 하도록 고무시켜 준다. 달리 말해, 고양을 경험한 개인들은 더 나은 사람, 즉 더욱 도덕적이고, 강직하고,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려는 강렬한 욕망을 갖게 된다.

## 2. 고양의 생리학적 토대와 기능

고양에 관한 실험 맥락에서 고양 조건에 있었던 참가자들은 무언가 상승된 느낌이 들고, 인간에 대해 낙관적이며 가슴 속의 온기를 느꼈다고 한다. 또한 그들은 타인을 도와주려는 욕망과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열망을 품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듯 고양의 상태는 주관적으로 그리

고 가슴 속의 온기로써 경험된다(Haidt, 2000, p. 2). 달리 말해, 개인들은 자신의 내부에서 무언가 상승되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대개 고양의 감정은 가슴 속 및 여타의 신체적 감각에서 느껴지는 온기 혹은 설렘에 상응한다. 자신들에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아내를 향한 동정심과 용서를 보여준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를 읽은 후에 참가자들은 오싹함과 설렘, 목이 메는 느낌, 눈물, 가슴 속의 온기, 흥조, 심장 박동 증가, 온화함을 느꼈다고 보고한 바 있다(Freeman, Aquino, & McFerran, 2009, p. 79).

고양의 상태는 옥시토신의 배출을 촉진한다. 옥시토신은 본래 자궁 수축과 젖 분비 촉진 기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 여러 실험 결과들을 통해 사람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효과도 있음이 밝혀졌다(Kosfeld et al., 2005, p. 673). 혈류 속의 옥시토신은 신뢰의 결정인자이고 신뢰의 표현이자 결과이다. 이러한 신뢰의 감정은 유덕한 행동에의 노출을 수반하는 주관적 경험과 동시 발생한다. 유덕한 행동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비디오를 시청하는 것은 산모의 젖 분비를 증가시켰다(Silvers & Haidt, 2008, p. 291). 도덕적 미를 관찰한 산모들은 오락물을 관찰한 산모들에 비해 자녀에 대해 더욱 애정이 깊은 양육 행동을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고양 상태가 혈류에서 옥시토신의 수준을 증가시키고 그 결과 젖의 분비를 촉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3. 고양과 유사 정서와의 관계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미(beauty)는 세 가지로 분류된다. 물리적 미는 주로 시각적 환경의 미를 비롯하여 음악과 같은 청각적 미를 의미한다. 기능이나 재능의 미는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는 묘기나 초인간적인 능력의 표현을 의미한다. 도덕적 미는 친절, 동정심, 용서 등과 같은 도덕적 덕의 표현을 의미한다. 각각의 미들은 관찰자들에게 상이한 정서를 유발시킨다. 물리적 미는 경외(awe), 기능적 미는 감탄(admiration), 그리고 도덕적 미는 고양을 유발시킨다. 이 세 가지 정서적 반응들은 모두 자기초월적인 정서들로 분류되며, 긍정심리학의 성격 강점 분류 체계에서 심미안(appreciation)으로 통합된다(Peterson & Seligman, 2004, p. 538). 고양은 도덕적 미에 의해 유발되는 정서이다. 타인이 실행하는 자선 행위, 친절, 충성, 자기희생의 숭고하고 유덕한 행동을 목격하는 것은 고양을 유발시킨다(Haidt, 2003, p. 864). 이렇게 볼 때, 고양은 타인의 모범적인 행동을 관찰할 때 유발되는 타인 칭찬과 연관된 도덕 정서이다(Algoe & Haidt, 2009, p. 105). 그러나 타인 칭찬 정서들은 각기 독특한 동기적 특성을 지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고양은 타인을 향한 친절함과 온화함을, 감사는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되돌려주고자 하는 마음을, 그리고 감탄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려는 열망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미묘한 차이점이 존재한다(Algoe & Haidt, 2009, p. 122).

고양은 여타의 도덕 정서들과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가? 고양의 정반대에 해당하는 도덕 정서는 사회적 혐오이고, 고양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도덕 정서로는 감사를 들 수 있다. 고양은 타인이 친절이나 영웅적 행동과 같은 도덕적으로 탁월한 행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격할 때의 주관적 경험을 기술하는 용어이다. 여기서 도덕적으로 탁월한 행동이란 그 행동을 수행하는 사람에게서는 손실이나 대가를 초래하는 가운데 타인을 이롭게 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고양을 경험할 때 사람들은 고무되고 상승된 느낌과 더불어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강한 동기를 갖게 된다. 고양을 경험할 때 사람들은 선한 행동을 하기를 바라는 충동을 갖게 된다. 나아가 사회적 혐오가 도덕적 타락에 의해 유발되는 정서라면, 고양은 도덕적 미에 의해 유발되는 정서이다. 이에 하이트는 고양과 사회적 혐오의 차이점을 다음의 <표 1>과 같이 제시하였다(Haidt, 2002, p. 285).

<표 1> 고양과 사회적 혐오의 차이

구성 요소	고양	사회적 혐오
유도 인자	인간의 상승, 인간과 신의 경계 무색	인간의 타락, 인간과 동물의 경계 무색
동기 경향성	융합, 마음 열기, 타인 돕기	분리, 폐쇄
정의적 현상	상승된 느낌, 인간에 대해 낙관적 감정	하강된 느낌, 인간에 대해 냉소적 감정
신체적 변화	가슴(온정의 발열)	내장(메스꺼움)
영향력	긍정적	부정적

고양의 상태는 도덕적 덕의 전형이 되는 행동, 즉 예상하지 않았던 친절, 동정심, 이해, 용서를 표상하는 행동을 목격하거나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발생한다. 하이트는 미국인 대상의 연구 결과만이 아니라 인도와 일본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들을 언급하면서, 타인들이 동정심 있고 용기 있는 행동을 수행하는 것을 지각하는 것은 가슴 속에서의 움직임, 온화함, 마음 열기와 같은 유쾌한 신체적 감정과 더불어 그들 스스로 유덕한 행동을 실천하려는 욕망을 강하게 불러일으켜 준다고 주장했다(Haidt, 2002, p. 283).

감사와 마찬가지로 고양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정서를 유발시킨 사람들을 향한 온화함과 애정을 느끼도록 해 준다. 그러나 감사와는 달리 고양은 스스로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리고 도덕적 귀감의 사례를 따르고자 하는 더 일반화된 욕망을 창출한다. 고양을 경험한 사람들은 타인을 돕는 것과 자선 단체에 기부하는 것에 더욱 적극적이고, 자신들의 삶의 목표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친사회적 특성을 열거하는 경향이 훨씬 많았다. 그러므로 고양은 프레데릭슨의 확장 축적 모델에 잘 부합하는 특징이 있다.

프레데릭슨(Fredrickson, 2001, p. 220)의 확장 축적 모델에 따르면, 부정적 정서가 특정 행동 경향성을 통해 선택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긍정적 정서는 가능한 행동들에 대한 생각을 확장하고 더 넓은 범위의 사고와 행동을 자각하도록 만든다고 한다. 긍정 정

서는 단기적으로 행동의 선택 가능성을 확장하여 창의성을 증대시키는데, 이는 부정 정서가 좁은 범위의 행동을 유발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대비된다. 또한 긍정 정서는 주의 폭을 넓혀, 사람들이 환경을 더 많이 알아차리고 주변에서 진행되는 것을 더 잘 인식하도록 돕는다. 부정 정서가 초점을 좁혀 안전하고 친숙한 것을 취하고 새로운 경험을 거부하도록 하는 것과 반대로, 긍정 정서는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높인다. 이처럼 부정 정서는 근본적으로 사고, 행동, 흥미의 선택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반면, 긍정 정서는 이를 확장시킨다. 확장 축적 이론에서는 긍정 정서가 창의적, 유동적, 전체적으로 사고하는 데에 도움을 주어, 우리로 하여금 신체적·사회적·지적 자원을 축적하게 만드는 기제가 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원은 우리가 더 오래 더 충만하게 살도록 도와준다. 우리를 긍정성으로 이끌어주는 대표적인 10가지 감정들은 사랑, 기쁨, 감사, 평온(serenity), 흥미, 희망, 자랑, 재미(amusement), 영감, 경외이다.

고양은 사고와 행동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사람들에게 열어주고, 도덕적 귀감의 교훈에 대한 감수성을 크게 높여준다. 이러한 열림의 과정은 왜 성인(聖人)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내러티브가 종종 귀인을 만나게 되어 감화된 후에, 그들의 이전 삶 그리고 심지어 이전의 이름을 모두 버리고 전혀 새롭고 더욱 이타적이고 덜 물질주의적인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사람들에게 관한 생생한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 이렇듯 고양은 인간의 정신에 있어서 일종의 도덕적 리셋(reset) 버튼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유덕한 모델을 통해 유발된 고양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보다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생성시켜 준다는 점에서 일종의 도덕적 리셋 버튼이 될 수 있다. 도덕의 덕의 모델이나 귀감들은 유덕한 파급 효과(ripple effect)를 만들어냄으로써 그것을 관찰한 타인들로 하여금 그러한 리셋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Haidt, 2003, p. 864).

고양과 감사는 직접적으로 친사회적 행동을 동기화시켜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감사의 유발 상황은 상당 부분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련을 맺는다. 왜냐하면 감사는 상대방에게 진 자신의 빚을 되돌려 갚아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양의 유도인자는 완벽하게 사심이 없는 것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이 또 다른 낯선 사람들에게 행한 좋은 행동에 대해 단순히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인간에 대한 경이적이고 고무적인 사실임에 틀림없다. 이 점에서 고양은 모든 도덕 정서들 가운데 가장 전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Haidt, 2003, p. 864).

외견상 고양은 경외(awe)의 감정 상태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다. 경외는 광대함과 조절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광대함이란 자아보다 훨씬 크게 인식되는 것 혹은 자아의 일상적 경험 수준이나 준거 틀보다 훨씬 크게 인식되는 모종의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조절은 피아제가 제시한 조절 개념과 동의어로서, 새로운 경험을 동화시킬 수 없을 경우에 정신 구조를 새롭게 적응시키는 것을 의미한다(Keltner & Haidt, 2003, pp. 303-304).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고양은 경외의 정서 무리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양자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존재한다. 고양에 선행하는 사건들은 관찰되는 것의 광대함과 힘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고양은

경외와는 다르다(Keltner & Haidt, 2003, p. 305).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친절 행동도 테레사 수녀의 심오한 이타심에 대하여 듣는 것처럼 고양을 유발할 수 있다. 경외감에 빠진 사람은 경외의 대상에 비교하여 낮아졌거나 보잘 것 없다고 느끼는 반면에, 고양된 사람들은 유덕한 행동을 한 사람들의 관찰을 통해 무언가 상승했다는 느낌을 가지며 자신들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

### Ⅲ. 고양의 단기적 · 장기적 효과

그렇다면 고양은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가? 여기서는 고양의 효과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의 분석을 통하여 고양의 단기적 효과와 장기적 효과를 밝히고자 한다.

#### 1. 고양의 단기적 효과

고양을 유발하는 전형적인 상황들은 누군가가 가난하거나 아픈 사람 혹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광경을 목격하는 것이다. 하이트의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인간의 도덕적 미의 표현을 관찰한 경우를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그 이야기 중 하나는 이런 것이었다. 네 명이 차를 타고 함께 가던 중에 도로에 쌓인 눈을 삽으로 치우는 할머니를 지나치게 되었다. 차안의 한 사람이 내려서 할머니가 눈을 치우는 것을 도와드렸다. 그러자 나머지 세 명도 타인을 돕겠다는 심오한 욕망을 경험하게 되었다(Haidt, 2000, p. 3). 그리고 도덕적 선함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후에 참가자들은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와 더불어 “나는 이야기 속의 사람처럼 되기를 더욱 바란다.”는 항목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크게 증가하였다(Freeman, Aquino, & McFerran, 2009, p. 80). 이렇듯 도덕적 미에 의해 유발된 고양의 상태는 자신이 관찰한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여 자기 스스로 실행하거나, 혹은 자신이 이전보다는 더욱 도덕적으로 나은 존재가 되어야겠다는 강한 열망과 다짐을 불러일으킨다. 고양 상태에서 사람들은 엄청난 감상력과 감탄을 경험하고, 때로는 유덕한 행동을 수행한 사람에 대한 애정마저도 드러낸다. 아직 고양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고양과 타인을 돕는 행동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들이 이미 존재한다.

범죄의 위험에 빠질 위험이 큰 빈곤층 학생을 성의껏 상담하고 지도하여 주요 파트를 연주하도록 만드는 데 성공한 어느 음악 교사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관찰한 참가자들은 중립적인 영상이나 일반적인 긍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영상을 관찰한 학생들에 비해 무보수 연구를 위한 자원 봉사나 단조로운 일을 마무리함으로써 실험자를 돕는 활동에 기꺼이 참여하려는 용의를 보여



주었다(Schnall, Roper, & Fessler, 2010, p. 315). 이 연구는 타인의 이타적 행동을 목격하는 것이 고양을 유발하고, 고양 상태는 이타주의의 증가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잘 입증해 준다.

자신들을 불구로 만들고 뺑소니를 친 트럭 운전사를 법정에서 기꺼이 용서하는 한 가족의 경이적인 유덕한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관찰한 후에 높은 사회 지배 지향(social dominance orientation)을 가진 백인 학생들이 흑인 학생들의 교육 개선을 위한 자선 행사에 대한 기부를 하겠다는 응답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Freeman, Aquino, & McFerran, 2009, pp. 80-81).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고양의 상태가 기부 행위를 방해하는 많은 장애들을 극복하게 해 준다는 것을 암시한다. 우월한 집단이 지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믿는 사회 지배 정향이 높은 개인들은 종종 가난한 공동체에 대한 기부 행동을 잘 하지 않는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빈곤 상태는 그들이 게으른 탓에서 비롯되는 자연적 질서에 따른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자신들에게 해로움을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개인들에 관한 비디오를 시청한 후에 사회 지배 정향과 기부 행위 반대 간의 연합은 크게 감소하였다(Freeman, Aquino, & McFerran, 2009, p. 81). 또한 도덕적 정체성을 자신의 자아개념에 있어서 중심적인 것으로 설정하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높은 수준의 도덕적 고양을 나타냈으며, 친사회적 행동에 관여하려는 의지가 더욱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Aquino, McFerran, & Laven, 2011, p. 703).

한편 고양의 상태는 성적 편견 감소에도 도움을 준다. 고양의 상태는 게이(gay) 남성에게 대한 편견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Lai, Haidt, & Nosek, 2014, p. 781). 고양은 이타성을 증진시켜 주기도 한다. 코미디 비디오를 시청한 개인들과 비교해 볼 때, 텔레사 수녀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개인들은 향후 자선단체를 돕기 위한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커짐을 알 수 있었다(Haidt, 2000, p. 4). 또한 고양 상태에서 일부 사람들은 쾌활 충동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개방성을 경험한다. 노인이 삼으로 눈을 치우는 것을 돕는 사람을 목격한 승객들은 타인을 칭찬하는 것, 눈 속에서 노는 것, 창의적 시도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는 것, 달리는 것, 강충강충 뛰는 것, 껴안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Haidt, 2000, p. 3).

긍정적 정서로서의 고양은 도덕 딜레마에서 의무론적 위반 행위에 대한 거부 의사를 증가시킨다. 명랑(mirth)은 도덕 딜레마에서 의무론적 위반에 대한 허용을 증가시키지만, 고양은 그 반대의 효과를 갖는다. 연구자들은 웃음을 주는 코미디, 마음을 고무시키는 이야기, 중립적인 이야기를 각각 들려준 후에 육교 딜레마에 대한 참가자들의 반응을 조사한 결과, 고양 상태에 있었던 참가자들은 의무론적 위반 행위에 대한 거부 의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고양의 단순한 효용성 극대화화 무관한 도덕적 반응을 활성화하고 확대한다는 것을 말해준다(Strohmingier, Lewis, & Meyer, 2010, p. 300). 또한 자신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에 관한 에세이를 작성했을 경우의 참가자들은 자신들에 대해 낮은 중요성을 가진 가치에 관한 에세이를 작성한 학생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사랑, 배움, 공감을 보여주었다(Schnall & Roper, 2012, p. 374). 이렇듯 고양은 자신의 핵심 가치를 행동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금까지 언급한 이 모든 결과들은 고양의 사람들이 하여금 선한 행동을 하도록 고무시켜

주기 때문에 매우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고양의 효과와 관련하여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항은 고양이 도덕적 미를 관찰함으로써 유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모든 덕들이 고양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자선 행위, 감사, 용기, 충성은 고양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미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혜, 절제, 인내 등은 고양을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Landis et al., 2009, p. 72). 그러므로 고양을 유발하는 도덕적 미에 대한 연구, 고양의 단기적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평가할 때에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 2. 고양의 장기적 효과

이론적 구성물이자 심리학적 변인으로서의 고양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존재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것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고양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더욱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 낸다. 하이트(2000, pp. 3-4)의 연구에 따르면 할아버지의 임종 때에 자신의 가족을 도와주었던 이웃들을 목격한 사람은 훗날 의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 그날 그가 경험한 감정은 7년 후에 진로 선택을 할 때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고양의 감정은 선한 행동을 베푼 사람에 대한 사랑과 감탄 그리고 그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의 욕망을 촉진한다.

각스(Cox, 2010, p. 333)는 도덕적 고양이 3개월 이후의 자애롭고 도움을 주는 행동을 증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은 고양을 체험하기 위해 니카라과로의 봉사활동 여행에 참가하였다. 그들은 나중에 도덕적 고양을 경험했는지의 질문을 받았다. “나는 니카라과의 공동체가 서로 염려하는 것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항목에 긍정의 답을 한 학생들은 고양을 경험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봉사활동 여행 기간 동안에 학생들이 고양을 경험했다면 학생들은 1주 후에 그리고 3개월 후에 이 프로그램에 더 많이 자원할 것이라는 예측을 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고양 경험과 무관한 프로그램에는 자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각스는 예측하였다. 각스가 예상한 바와 같이, 이전의 니카라과로의 봉사활동 여행에 대해 성찰해 본 학생들은 고양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이러한 감정은 다시 자원봉사를 하려는 충동을 불러일으켰다. 반대로 참가자들은 다른 프로그램과 고양 간의 연합을 만들어 내지는 못했다. 다른 프로그램에의 노출은 고양의 감정을 이끌어내지 못하여 자원봉사를 고무시키지 못했다. 고양의 경험은 그들이 고양을 느꼈던 영역에서의 자원봉사 활동만을 동기화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친사회적 반응이 고양의 행동적 효과이지만, 친사회적 반응은 고양을 경험한 맥락과 연관된 영역에서만 발생한다는 것임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고양 경험이 무조건적으로 친사회적 경험을 예측해 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고양의 장기적 효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도 찾을 수 있는 바, 고양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나

시각적 표현들이 바로 하나의 전통이 된다는 사실이다. 도덕적 고양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나 시각적 표현들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면서 전통이 될 때, 그 전통들은 후손들의 생존과 재생산에 유익한 친사회적 행동을 만들어낸다(Palmer, Begley, & Coe, 2013, p. 107). 미래 세대에서 후손들의 숫자를 증가시키는 전통들은 후손 남김 전략으로 여겨질 수 있다. 덕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시각적 표현은 도덕적 고양의 상태를 만들어 내기 위해 계획된 것이고, 그것들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수백 년 동안 전수되는 것이다.

#### IV. 도덕교육에서 고양의 중요성과 교육 방법

우리가 도덕교육에서 고양을 중시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학생들의 고양 경험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하는가? 긍정적인 도덕 정서 그리고 타인에 대한 칭찬과 관련된 자기 초월적인 도덕 정서로서의 고양은 우리로 하여금 도덕적 역할 모델의 행동을 모델링하거나 또는 더 나은 도덕적 인간이 되겠다는 강한 욕망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도덕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여기서는 고양이 도덕교육에서 중요한 이유를 도덕적 면허의 상쇄 효과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 도덕교육에서 고양 경험을 증진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 1. 도덕적 면허의 상쇄 효과

사실상 자신을 도덕적으로 강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심지어 살인과 폭력을 일삼은 상당수의 범법자들마저도 자신들이 긍정적인 도덕적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그들은 부당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만행을 저질렀다는 식의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거나, 타인과의 유리한 비교를 통하여 자신의 도덕적 우위를 조금이라도 더 표명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일부 학자들은 사람들이 명백한 도덕적 위반에 직면하여 자신의 도덕적 자아 가치(self-worth)를 조절하는 방식에 대해 연구하여 왔다. 그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암묵적인 수준에서 자신들의 도덕적 행동을 파악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떤 좋은 행동을 했을 때에는 일종의 도덕적 신용(moral credits)을 축적한 것으로 여기고, 그러한 도덕적 신용은 이후에 자신들이 모종의 비도덕적인 행동을 했을 때에 현금화하여 상쇄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사람들이 자신의 도덕적 진실성에 대해 상당한 수준으로 확신하고 있을 경우에는 더 이상의 선한 행동을 실행하려는 동기를 거의 갖지 못한다고 한다. 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일컬어 도덕적 면허(moral licensing)라고 부른다(Schnall &

Roper, 2012, p. 373).

사람들은 그들의 다음 행동이 도덕적으로 미덥지 않을 경우에는 그들이 이전에 실행한 도덕적 행동으로부터 일종의 신용을 이끌어 내어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행동에 관여할 경향성이 크다(Merritt, Effron, & Monin, 2010, p. 344). 예를 들어, 자신들의 이전 행동이 동정심, 관대함, 편견 없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확신할 때, 그들은 냉혹하고 이기적이고 편협한 것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느끼지 않는 가운데, 도덕적으로 미덥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할 경향성이 더욱 증가한다. 이러한 도덕적 면허는 대개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작동한다. 하나는 도덕적 신임장(moral credentials) 기제이다. 개인의 선한 행동은 그 사람에게 선한 사람이라는 일종의 신임장을 제공하여 준다. 그 결과 그 사람은 이후의 문제시 되는 행동을 도덕적으로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비도덕적 행위에 관여하지 않는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믿게 해주는 신임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도덕적 신용(moral credits) 기제이다. 개인의 선한 행동은 도덕적 은행에 도덕적 달러를 예치하게 만든다. 따라서 자신의 도덕적 은행 계좌에 잔고가 충분히 있을 때에는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모종의 상환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러한 도덕적 면허는 도덕적 영역의 전역에 걸쳐서 발생한다. 어느 한 영역에서의 선한 행동은 다른 영역에서의 도덕적 면허를 가능하게 한다.

이에 연구자들은 도덕적 면허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실험 참가자들에게 성 차별주의적인 진술에 반대함으로써 자신에게 도덕적 신임장을 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이후의 과제에서 도덕적 신임장을 부여받은 실험 참가자들은 그렇지 않았던 참가자들에 비해 더욱 편견을 지닌 견해를 드러냈다(Monin & Miller, 2001, p. 35). 이를테면, 명백하게 성차별주의적인 진술들에 반대할 기회를 가졌던 참가자들은 이후에 고정관념적으로 남성의 일에 해당하는 직종에 대한 선택에 있어서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욱 적합하다는 반응을 더 많이 보여 주었다. 성차별주의에 대한 반대를 통해 도덕적 신임장을 획득한 참가자들은 이후의 성과 관련한 애매모호한 결정 상황에서 남성을 편애하는 성차별적인 행동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적 태도의 영역에서도 발견되었다. 오바마(Obama) 대통령에 대한 투표 선호도를 보여주었던 실험 참가자들은 이후의 과제에서 흑인보다는 백인을 향한 긍정적인 편애를 보여주었다(Effron, Cameron, & Monin, 2009, p. 592). 많은 유권자들에게 있어서 오바마를 지지한 것은 그들의 정치적 가치만이 아니라 그들이 인종 편견을 갖고 있지 않음을 표명하는 것이다. 오바마를 지지한 참가자들은 일종의 도덕적 신임장을 획득하여 이후의 결정 과제에서 직종에의 적합성과 기부금 할당에 있어서 흑인보다는 백인을 훨씬 편애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도덕적 면허 효과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와 관련된 사고를 할 때에도 발생한다. 단어 목록들 가운데서 긍정적인 특성의 단어들을 인용하여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술하는 데 사용한 실험 참가자들은 중립적인 단어들을 포함하여 이야기를 기술했었던 참가자들에 비해 자선 단체에의 기부 의사와 환경 보전 활동에 대한 협조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다(Sachdeva, Iliev, & Medin, 2009, p. 523). 이것은 자신들의 긍정적 특질에 관한 참가자

들의 사고가 그들의 도덕적 진실성을 확인시켜 주었고, 그 결과 친사회적 행동에 관여하려는 욕구의 감소를 초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특성들을 현출하는 것이 실제적인 도덕적 행동에 관여하는 것을 필수적이지 않게 만들어 버리는 도덕적 면허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 준다.

도덕적 면허 효과에 관련된 연구들은 인간 본성에 대해 상당히 비관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아 가치가 도전을 받은 이후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도덕적 행동을 한다. 이것은 달리 말해 이타주의와 같은 친사회적 행동이 많은 경우에서 사실은 단순히 이기적인 것일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일단 자신이 도덕적으로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실을 더 입증할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도덕적 면허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해진다(Sachdeva, Iliev, & Medin, 2009, p. 528). 긍정적인 도덕 정서로서의 고양이란 바로 도덕적 면허를 상쇄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던 도덕적 면허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때, 고양을 경험한 후에 관찰되는 친사회적 행동의 증가 현상은 자신의 도덕적 자아 가치감에 대한 위협감의 결과일 수도 있다. 달리 말해, 고양이란 만들어 내는 이타적 행동이 일종의 도덕적 정화(moral cleansing)로 여겨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비도덕적 행동을 했을 때에는 도덕적 정화 행동을 실행한다.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잘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도덕적 면허와 도덕적 정화를 통한 도덕적 자기 조절(moral self-regulation)을 시도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모닌(Monin, 2007, p. 56)은 이례적인 도덕적 행동을 관찰하는 것은 상향적인 사회적 비교를 촉발한다고 주장한다. 즉, 그러한 관찰 행동은 관찰자 자신의 도덕성이 지금 무언가를 결여하고 있다는 결론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위협에 대한 하나의 반응은 바로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과 같은 행위에 관여하여 자신의 자아 가치감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 결과 사람들은 고양을 경험하여 자신들의 도덕적 가치를 재확인할 기회를 부여받았을 때에는 그 이후에 돕는 행동에 덜 관여하게 될 수도 있다. 반대로 자기 나름의 긍정적 특성과 도덕적 확신에 대해 깨닫도록 하는 기회에 직면한 후에 고양을 경험하는 것은 자신의 도덕적 신념에 입각하여 행동할 동기를 부여하여 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가치와 부합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그때의 자기 확언은 사랑과 배려와 같은 타인 지향적인 자기 초월의 정서를 유발한다.

그러므로 개인이 이전의 경험을 어떻게 개념화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친사회적 행동 시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선한 행동이 자신의 도덕적 정체성에 대해 부여하는 함축 의미처럼 매우 추상적인 용어로서 강조되어야만 한다. 반대로 타인을 돕거나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이전의 실패는 매우 구체적인 행동 용어로 표현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자기 지각은 자기 조절적인 행동을 활성화하고, 추상적인 자기 지각은 정체성 문제를 활성화하기 때문이다(Conway & Peetz, 2012, p. 907). 따라서 자아개념의 긍정적 측면에 대하여 생각하게 한

후에 고양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자신의 도덕적 가치를 실행으로 옮겨줄 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도덕적 면허를 회피할 수 있게 해 준다.

도덕적 면허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한 허용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사회적 측면에서 모두 부정적인 결과를 수반한다. 따라서 개인의 자아 가치감에 대한 위협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도덕적 행동을 실행할 수 있는 자신의 긍정적 특성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자기 확인의 기회를 갖게 하면서 고양의 감정을 경험하는 것은 그러한 지식에 입각하여 행동할 동기적 추진력을 제공한다. 이때의 고양 경험은 개인에게 일종의 도덕적 권한(moral empowerment)을 제공하는 효과를 갖는다. 따라서 고양은 자신의 도덕적 정체성에 입각하여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도덕적 면허를 회피할 수 있게 해 주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 2. 고양의 증진 방법

그렇다면 우리는 학생들의 고양 상태 경험을 증진하기 위해 어떠한 시도를 해야 하는가? 전통적으로 도덕교육에서는 역할 모델 전략을 도덕성 발달을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 활용하여 왔다. 그러기에 우리는 도덕 교과서에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에 관한 내러티브를 다수 포함하였고, 교사들은 도덕적 귀감과 관련한 예화를 빈번하게 활용하여 왔다. 그러면서 우리는 역할 모델 전략을 모방을 통한 습관화, 관찰학습을 통한 내면화의 측면에서 정당화하여 왔다. 고양에 관한 연구들은 타인의 도덕적 미를 관찰하는 것이 도덕 정서로서의 고양 상태를 유발함과 동시에 친사회적이고 이타적인 행동을 실행할 가능성 및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도덕적 열망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역할 모델 전략의 중요성을 새로운 측면에서 부각시켜 주었다.

오늘날 도덕적 미에의 관여를 통한 고양 상태 증진에 관심을 둔 학자들은 고양의 증진 방법으로서 두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교육과정의 측면에서 모든 교과들은 학생들이 도덕적 미에 관여하는 기회를 높여주어야 한다. 이를테면, 과학 수업에서는 진실성 있는 연구의 실천을 통해 인류의 번영과 행복에 기여하는 진정한 과학자의 유덕한 행동을 포함시켜야 한다. 사회 수업에서는 자신의 집단을 배려하고 집단을 위해 희생한 리더의 역할, 그리고 공동체의 정의를 위해 맞서 싸운 사람들을 포함하여 강조해야 한다. 국어 시간에는 고양을 일으키는 덕목들을 예증하는 이야기를 활용해야 한다. 체육 시간에는 미덕을 표현했던 운동선수들의 이야기를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교사는 일상생활에서 도덕적 미를 담은 행동을 목격하는 학생들 나름의 경험에 대한 도덕적 미 일지(moral beauty log)를 작성하여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일지 작성은 도덕적 미와의 관여 수준을 현격하게 높여준다(Dissner, Smith, & Haidt, 2013, p. 591).

외견상 이러한 제안은 그리 새로울 것이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우리는 도덕 교과에서 다양한 도덕적 역할 모델을 이미 교과서에 제시하고 있고, 상당수 교사들이 학생들로 하여금 미덕 노트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도덕적 역할 모델의 행동을 자신들과는 거리가 먼 성인, 군자들의 행동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일부 교사들은 도덕 교과에서 숭고한 도덕적 미를 담은 도덕적 역할 모델의 제시는 도덕적 삶을 지나치게 추상화·이상화할 뿐, 학생들의 실제적인 도덕적 삶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불평하기도 한다. 도덕적 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방법이며, 지금 당장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라고 강변하는 학자들도 일부 존재한다.

그러나 나는 역할 모델 전략을 통한 도덕적 모델링은 도덕교육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방법의 하나라고 믿는다. 도덕적 덕목들이 역할 모델과 독립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역할 모델을 경쟁적으로 모방하는 것(emulation)은 유덕한 인간이 됨에 있어서 교육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Kristjánsson, 2006, p. 47). 따라서 우리는 역할 모델링을 통한 도덕교육의 실천에 있어서 우리가 소홀하거나 간과한 것이 무엇이었던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도덕적 역할 모델과의 접촉이나 관찰의 기회를 빈번하게 제공하면서도 실제로는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고양 상태를 경험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라는 철저한 자기반성을 촉구한다.

그렇다면 역할 모델링을 통한 고양 상태 증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서 우리는 단순한 흉내 내기식의 모방과 경쟁적 모방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도덕적 행동과 정서를 모델링하여 학생들의 도덕 발달을 이끄는 데에는 크게 보아 두 가지의 방식이 존재한다(Sanderse, 2013, p. 36). 하나는 교사가 학생들을 조건화시키는 것이다. 즉, 학생들은 그들의 역할 모델을 흉내 내는(imitating) 것이다. 이 경우 학생들은 유덕한 모델이 행하는 방식에서 행동하거나 정서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통의 감정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감정은 학생들로 하여금 모델의 특성을 획득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모델처럼 행동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교사가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이다. 즉, 학생들은 그들의 역할 모델을 경쟁적으로 모방하는(emulating) 것이다. 이 경우 학생들은 고통을 느끼고, 변화를 위해 동기화되고, 적절한 행동을 취할 뿐만 아니라 교사가 도덕적 덕과 악의 척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한다. 학생들은 도덕적 모델을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구체화한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가 언급했었던 경쟁적 모방(emulation)은 정의적·의욕적·인지적·행동적 요소를 포함한다. 여기서 정의적 요소는 역할 모델이 지닌 바람직한 특성을 상대적으로 자신이 결여하고 있다는 데서 느끼는 모종의 고통이다. 의욕적 요소는 그러한 바람직한 특성을 획득하려는 동기이다. 인지적 요소는 역할 모델에 의해 드러난 그러한 특성들이 자신을 도덕적으로 가치 있게 여김에 있어서 왜 중요하고, 그러한 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의 발달로 구성된다. 끝으로 행동적 요소는 그러

한 특성을 획득하기 위한 실제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다(Kristjánsson, 2006, p. 45).

사실 지금까지 도덕적 미의 모델을 활용한 우리의 교육 방식은 조건화에 가까운 것, 즉 역할 모델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그것을 흉내 내기를 원하는 조건화에 가까운 방식이었다. 달리 말해, 우리는 의욕적 차원과 행동적 차원만을 강조했을 뿐, 정서적 요소나 인지적 요소의 중요성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역할 모델링이 학생들의 도덕교육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려면, 교사가 모델이 되는 특성들이 도덕적으로 중요한 이유 그리고 학생들 스스로 그러한 특성을 획득하는 방법에 대해 학생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은 역할 모델 속의 무엇이 따를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사는 역할 모델링을 통한 고양의 유발 조건들에 대한 명확한 지식과 기능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하이트의 실험에서 고양을 확인하기 위한 자극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삶의 경험에서 인간의 더 높은 더 좋은 본성이 표현된 것을 목도한 특정한 시점에 대해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통제 집단의 참가자들에게는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 애를 썼었던 특정한 시점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였으며, 이것은 행복의 촉진 요인으로서 타인에게 칭찬을 받을만한 행동에 대한 기술을 솔직하게 드러내도록 한 것이다. 이후에 하이트는 테레사 수녀의 삶에 관한 10분짜리 영상을 실험 대상자들에게 보여주었다. 그 결과, 고양 조건에 있었던 참가자들은 행복이나 여타의 통제 조건에 있었던 참가자들에 비하여 상이한 유형의 신체적 감정과 동기 유형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고양된 참가자들은 영상을 본 후에 가슴 속에서의 온화함, 유쾌함, 설렘과 흥분의 감정과 같은 신체적 감정들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한 그들은 타인을 돕고자 하는 욕망, 그들 스스로가 더욱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 타인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으려는 욕망이 강하게 생성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자신의 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시점에 대해 생각했었던 통제 조건의 참가자들은 사적이고 자기 이익적인 추구에 관여하려는 욕망이 증가한 반면에, 고양 조건의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크게 열어 그들의 주의력을 외부로 향하게끔 하는 타인 지향적인 관심과 욕망이 강화되었다.

이것은 도덕적 역할 모델 전략이 실제적인 고양 조건을 유발하도록 만들기 위해, 교사가 역할 모델 전략의 실행에 앞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삶에서 긍정적인 도덕적 역할 모델의 행동을 관찰했었던 기억들을 상기하게 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그 기억을 자신의 긍정적인 성격 특성과 연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후에, 교과 수업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 역할 모델을 제시했을 때 학생들이 실제적인 고양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도덕 정서로서의 고양은 우리가 도덕교육을 통해 역할 모델 전략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준다고 평가할 수 있다.



## V. 결론

인간의 덕(virtues)은 도덕적 미의 한 표현이다. 이런 점에서 도덕적 선(moral goodness)과 도덕적 미는 동의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타인의 도덕적 선함을 보고도 아무런 감흥이 없거나 전혀 감정의 움직임이 없을 수 있다. 도덕적으로 선한 행동에 의해 관찰자의 정서가 연루되어 감정의 움직임이나 고양을 느낄 때에 그 행위를 비로소 도덕적 미라고 부를 수 있다(Diessner et al., 2006, p. 304). 즉, 우리가 어떤 행동을 도덕적 미의 행동이라고 부를 때, 그것은 그 행동에 의해 우리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덕적 미에 의해 유발되는 독특한 정서적 경험을 일컬어 우리는 고양이라고 부른다. 고양은 도덕적 미에 의해 유도되고, 인간다움의 최상의 본질의 표현을 보거나 목격하는 것에 의해 야기된다(추병완, 2013, p. 254). 고양은 가슴 속에 온화와 확장이라는 독특한 감정을 유발한다. 고양은 더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열망을 야기한다. 고양은 그러한 감정을 생기게 만든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타인들을 향해서도 자신의 마음을 열게 만들어 준다. 고양의 친사회적 행동 경향성은 그러한 감정을 유발시킨 사람에 대한 감사의 수준을 넘어서서 그 자신이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리고 도덕적 역할 모델의 사례를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일반화된 욕망을 포함한다(Haidt, 2002, p. 864).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도덕교육에서 중시하는 도덕적 미는 심오한 도덕 정서인 고양의 인과적 요인이자 유도체이다.

전통적으로 도덕교육은 문학 작품이나 위인전, 매스미디어에 등장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도덕적 미에 학생들을 자주 접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고양을 유발하여 궁극적인 도덕 발달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고양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시도해 온 역할 모델 전략이 도덕교육에 있어서 매우 기본적이면서도 타당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잘 말해 준다. 또한 고양은 우리로 하여금 도덕적 면허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자극과 기회를 제공한다. 도덕적 면허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한 허용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사회적 측면에서 모두 부정적인 결과를 수반한다. 따라서 개인의 자아 가치감에 대한 위협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도덕적 행동을 실행할 수 있는 자신의 긍정적 특성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자기 확언의 기회를 갖게 하면서 고양의 감정을 경험하는 것은 그러한 지식에 입각하여 행동할 동기적 추진력을 제공한다. 이때의 고양 경험은 개인에게 일종의 도덕적 능력과 권한(moral empowerment)을 제공하는 효과를 갖는다. 따라서 고양은 자신의 도덕적 정체성에 입각하여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도덕적 면허를 회피할 수 있게 해 주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한편 고양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때, 도덕교육에서 기존의 역할 모델 전략은 흉내 내기(imitation)의 차원에 그칠 뿐,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시했었던 경쟁적 모방(emulation)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우리는 경쟁적 모방의 인지적 요소들을 무시해 온 것

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도덕적 미에 단순히 학생들을 접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고양의 유발이 어렵다는 사실에 새롭게 주목해야 한다. 도덕적 역할 모델 전략이 실제적인 고양 조건을 유발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의 신중한 노력과 기술이 필요하다.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삶에서 긍정적인 도덕적 역할 모델의 행동을 관찰했었던 기억들을 회상하게 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그 기억을 자신의 긍정적인 성격 특성과 연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후에, 교과 수업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 역할 모델을 제시했을 때 학생들이 실제적인 고양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도덕 정서로서의 고양은 우리가 도덕교육을 통해 역할 모델 전략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양을 학생들의 핵심 가치를 행동으로 변환시키는 특별한 기제라는 사실을 인식하여, 도덕적 미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학생들의 고양 상태 경험을 증진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추병완(2013). 신경과학 시대에서 도덕교육의 새 패러다임. *윤리연구*, 93, 231-264.
- Algoe, S. B., & Haidt, J. (2009). Witnessing excellence in action: the 'other-praising' emotions of elevation, gratitude, and admiration.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4(2), 105-127.
- Aquino, K., McFerran, B., & Laven, M. (2011). Moral identity and the experience of moral elevation in response to acts of uncommon goodnes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100(4), 703-718.
- Conway, P., & Peetz, J. (2012). When does feeling moral actually make you a better person? conceptual abstraction moderates whether past moral deeds motivate consistency or compensatory behavi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8(7), 907-919.
- Cox, K. S. (2010). Elevation predicts domain-specific volunteerism 3 months later.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5(3), 333-341.
- Diessner, R., Rust, T., Solom, R. C., Frost, N., & Parsons, L. (2006). Beauty and hope: a moral beauty intervention. *Journal of Moral Education*, 35(3), 301-317.
- Diessner, R., Iyer, R., Smith, M. M., & Haidt, J. (2013). Who engages with moral beauty? *Journal of Moral Education*, 42(2), 139-163.
- Effron, D. A., Cameron, J. S., & Monin, B. (2009). Endorsing Obama licenses favoring Whit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5(3), 590-593.
- Fiske, A. P. (2002). Socio-moral emotions motivate action to sustain relationships. *Self and Identity*, 1(2), 169-175.
- Frederickson, B. F. (2001). The role of positive emotions in positive psychology: The broaden and build theory of positive emotions. *American Psychologist*, 56(3), 218-226.
- Freeman, D., Aquino, K., & McFerran, B. (2009). Overcoming beneficiary race as an impediment to charitable donation: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the experience of moral elevation, and donation behavior.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Bulletin*, 35, 72-84.
- Graham, J., Haidt, J., & Rimm-Kaufman, S. E. (2008). Ideology and intuition in moral education.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al Science*, 2(3), 269-286.
- Green, J. D. (2011). Emotion and morality: A tasting menu. *Emotion Review*, 3(3), 1-3.

- Haidt, J. (2000). The positive emotion of elevation. *Prevention and Treatment*, 3(3), 1-5.
- Haidt, J. (2001). The emotional dog and its rational tail: A social intuitionist approach to moral judgment. *Psychological Review*, 108(4), 814-834.
- Haidt, J. (2002). Elevation and the positive psychology of morality. In C. L. M. Keyes (Ed.). *Flourishing: Positive psychology and the life well-liv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75-289.
- Haidt, J. (2003). The moral emotions. In R. J. Davidson, K. R. Scherer & H. H. Goldsmith (Eds.). *Handbook of affective scie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852-870.
- Haidt, J. (2007). The new synthesis in moral psychology. *Science*, 316, 998-1002.
- Haidt, J. (2013). Moral psychology for the twenty-first century. *Journal of Moral Education*, 42(3), 281-297.
- Haidt, J., & Kesebir, S. (2010). Morality. In S. Fiske, D. Gilbert, & G. Lindzey (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Hoboken: Wiley, 797-832.
- Keltner, D., & Haidt, J. (2003). Approaching awe, a moral, spiritual, and aesthetic emotion. *Cognition and Emotion*, 17(2), 297-314.
- Kosfeld, M., Heinrichs, M., Zak, P. J., Fischbacher, U., & Fehr, E. (2005). Oxytocin increases trust in humans. *Nature*, 435, 673-676.
- Kristjánsson, K. (2006). Emulation and the use of role models in moral education. *Journal of Moral Education*, 35(1), 37-49.
- Lai, C. K., Haidt, J., & Nosek, B. A. (2014). Moral elevation reduces prejudice against gay men. *Cognition & Emotion*, 28(5), 781-794.
- Landis, S. K., Sherman, M. F., Piedmont, R. L., Kirkhart, M. W., Rapp, E. M., & Bike, D. H. (2009). The relation between elevation and self-reported prosocial behavior: Incremental validity over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4(1), 71-84.
- Maxwell, B., & Reichenbach, R. (2005). Imitation, imagination and reappraisal: Educating the moral emotions. *Journal of Moral Education*, 34(3), 291-307.
- Merritt, A. C., Effron, D. A., & Monin, B. (2010). Moral self-licensing: When being good frees us to be bad.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4/5(2010), 344-357.
- Monin, B. (2007). Holier than me? Threatening social comparison in the moral domain. *International Review of Social Psychology*, 20, 53-68.
- Monin, B., & Miller, D. T. (2001). Moral credentials and the expression of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81(1), 33-43.
- Palmer, C. T., Begley, R. O., & Coe, K. (2013). Sainly sacrifice: The transmission of moral

- elevation. *Zygon*, 48(1), 107-127.
- Peterson, C., & Seligman, M. E. P. (2004).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A handbook and classific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achdeva, S., Iliev, R., & Medin, D. L. (2009). Sinning saints and saintly sinners: The paradox of moral self regulation. *Psychological Science*, 20, 523-528.
- Sanderse, W. (2013). The meaning of role modelling in moral and character education. *Journal of Moral Education*, 42(1), 28-42.
- Schnall, S., & Roper, J. (2012). Elevation puts moral values into action. *Social Psychology and Personality Science*, 3(3), 373-378.
- Schnall, S., Roper, J., & Fessler, D. M. T. (2010). Elevation leads to altruistic behavior. *Psychological Science*, 21, 315-320.
- Silvers, J., & Haidt, J. (2008). Moral elevation causes lactation. *Emotion*, 8, 291-295.
- Strohminger, N., Lewis, R. L., & Meyer, D. E. (2010). Divergent effects of different positive emotions on moral judgment. *Cognition*, 119, 295-300.
- Tangney, J. P., Stuewig, J., & Mashek, D. J. (2007). Moral emotions and moral behavior.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8, 345-372.
- Tiefenbeck, V., Staake, T., Roth, K., & Sachs, O. (2013). For better or worse? Empirical evidence of moral licensing in a behavioral energy conservation campaign. *Energy Policy*, 57, 160-171.
- Vianello, M., Galliani, E. M., & Haidt, J. (2010). Elevation at work: The organizational effects of leaders' moral excellenc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5, 390-411.
- Weiner, B. (2006). *Social motivation, justice, and the moral emotions: An attributional approach*, Mahwah: Lawrence Erlbaum.

• 논문접수 : 2014-08-22/ 수정본접수 : 2014-09-30/ 게재승인 : 2014-10-13

## ABSTRACT

### The implications of elevation to moral education

Beong-Wan Chu

(Professor,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Observing acts of moral virtues triggers moral elevation, a distinct emotion characterized by a sense of feeling morally uplifted and inspired. Elevation is the positive emotion elicited when observing others behaving in particularly virtuous, commendable, or superhuman way. Those who were in a state of elevation reported warm, pleasant, tingling feelings on their chest. They also felt open to other people as their attention turned outward, and they felt motivation to help others and to become better people themselves. Furthermore, elevation triggers prosocial motivation, positive emotion, and helping behavior. However, researches on elevation are not abundant in both domestic and foreign journals. In this regard, this article aimed to explore the implications of elevation to moral education.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this article showed the meaning and effects of elevation, argued for the importance of elevation in avoiding moral licensing, and finally suggested the desirable way of promoting elevation among students. It is for us very important to acknowledge that elevation provides a special opportunity to turn students' core moral values into action.

Key Words : elevation, Haidt, moral education, moral emotion, moral licensing, role model